Ⅱ. 금융산업개편에 대한 전망

1. 금융산업개편의 촉진요인

세계적으로 볼 때 금융겸업화의 배경에는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주된 요인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는 투자자 및 수요자들의 금융수요 다변화라는 내부적 요인에 의해 진행되었으나, 일본의 경우는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진행되었고, 프랑스의 경우도 대외적 요인이 더 컸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금융겸업화는 은행이 주도하였는데, 은행이 보험업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1]. 첫째로, 규제정책이 은행의 보험업 진입을 허용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전통적인 은행고유업무로부터 수익률이 저하하는 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업무를 다각화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로, 고객의 투자선호가 노령화의 진전 등에 따라 전통적인 저축보다는 연금보험 등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넷째로, 은행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투자한 고가의 지점 네트워크를 극대로 이용하여 고객서비스센터나 상품판매채널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이다. 다섯째로, 은행 고객과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보험산업에 진출하려는 욕구가 존재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보험업에 진출한 은행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었다[2]. 첫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대규모의 고객을 기반으로 보험판매를 할 수 있었다. 둘째, 낮은 비용으로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보험판매채널인 지점 망을 광범위하게 소유하고 있었다. 셋째, 보험회사에

---

1) Leach(1995), p. 15.
2) Leach(1995), pp. 15 16.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어 영업에 유리했다. 넷째,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판매와 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수 있었다. 다섯째, 가장 적절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고객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보험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금융산업개편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금융산업개편을 촉진하는 요인을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대외적 요인

대외적 요인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글로벌화 시대에서 경쟁은 국내시장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규모와 범위의 경제 효과를 통한 비용절감과 서비스 제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화 시대의 경쟁에서는 규모가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명확한 실증분석 결과는 없지만 대체로 현재 세계금융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은 대형금융기관인 것을 통해 볼 때 금융기관의 대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종합금융서비스 체제의 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능력의 향상은 금융업무개혁의 세계적 추세가 겸업화 체제로 이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본다[3].

또한 금융산업개편은 OECD 가입에 따른 금융제도의 정비와 맞물려 금융산업개편이 촉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금융기술의 혁신과 금융수요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금융의 자유화가 상당 수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부문의 개방(표 II-1 참조)에 맞추어 선진국 수준으로 전반적인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금융마찰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외국 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국내에 진출하려 할 때 허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만약 이 은행의 진입을 허

3)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용한다면, 국내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압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표 Ⅱ-1> 금융산업 개방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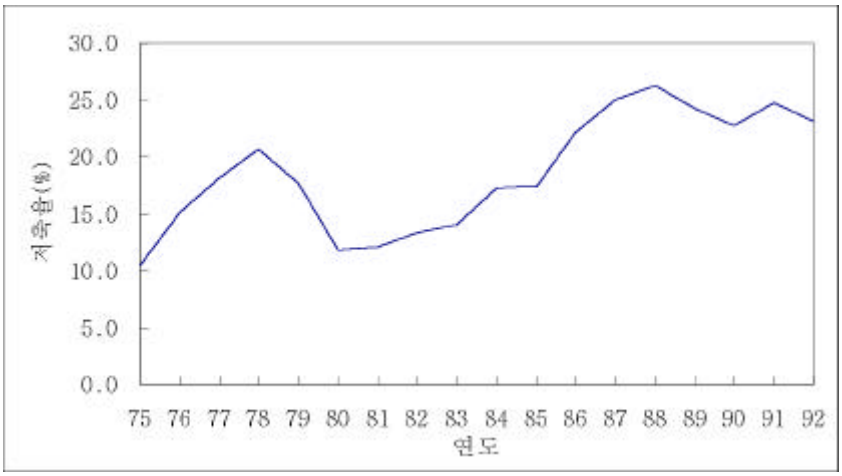
분야	개방내용	시기
1. 은행업	- 현재법인 설립 허용	1998. 12
2. 투자신탁업	- 국내 기존 증권투신사에 대한 외국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10% 이내) 폐지 - 국내 기존 증권투신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50% 미만) 폐지 - 신설·합작법인 설립 허용 - 외국사 지점 설치시 사무소 전치주의 폐지	1997. 1 1997. 12 1998. 12 1998. 12
3. 단자·종금사	- 국내 기존사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50% 이하) 폐지	1997. 1
4. 증권업	- 국내 기존사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10% 이하) 폐지 - 신설 현지법인 설립허용 및 국내 기존사 외국인투자비율 제한(50% 이하) 폐지	1997. 1 1998. 12
5. 투자자문업	- 국내 기존사 외국인투자가 1인당 투자비율(10% 이내) 폐지 - 신설 현지법인 허용 - 국내 기존사 외국인투자비율 제한(50% 미만) 폐지	1997. 1 1997. 12 1998. 12
6. 보험업	- 합작 생보사 최저지분(49%) 폐지 및 보증보험업·비생보 재보험업 허용 - 보험 독립대리점 허용 - 보험대리 및 중개업·보험감정업 허용	1997. 4 1997. 4 1998. 4
7. 상호금융업	- 특정 다수인 대상 상호금융업 허용	1997. 1
8.신용판매금융업	-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 허용	1997. 1
9. 신용조사업	- 신용평가업 허용 - 신용조사업 부분 허용(50% 미만)	1997. 1 1997. 1

이렇듯 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금융기관간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었는데,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범위한 금융규제 완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도에 광범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실시한 데 이어, 최근에는 1997년도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을 계기로 금융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까지도 포함한 소위 한국판 '빅뱅'을 추진 중에 있다.

나. 대내적 요인

금융산업개편을 촉진하는 대내적 요인으로는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 변화, 금융효율화를 통한 기업의 금융비용 인하 압력, 금융기관의 겸업화를 통한 금융리스크 분산 노력, 금융기술 혁신, 기업 자금조달원의 직접금융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림 II- 1] 개인저축률의 추이



1980년대 후반 이후로 개인저축률의 저하 추세(그림 Ⅱ-1 참조) 속에서 수요자의 저축동기(표 Ⅱ-2 참조)와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도 변화하고 있다. 즉, 최근 들어 대형 사고가 증대하고 노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 수요자들이 보험, 신탁, 개인연금 등의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소위 '금융의 스톡화'가 진전되고 있다(표 Ⅱ-3 참조).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단기예금 중심의 거래에서 예·대 마진으로부터 수익을 올려오던 은행이 수익성의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타업종에 진출하려는 요구가 더 커지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연금보험 등으로부터 들어오는 막대한 규모의 수입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서 적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업무범위의 확대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Ⅱ-2> 개인의 저축동기 변화 추이

(단위 : %)

	1985	1990	1995
1위	교육비 마련 (37.5)	자녀 교육비 마련 (31.9)	자녀 교육비 마련 (28.4)
2위	주택구입 (23.5)	주택자금 마련 (26.0)	재난 대비 (26.5)
3위	노후생활 대비 (17.4)	노후생활 안정 (16.2)	주택자금 마련 (14.4)
4위	재난 대비 (9.1)	재난 대비 (14.6)	노후 생활 안정 (14.1)
5위	차입금 상환 (5.1)	관혼상제 (4.4)	관혼상제 (8.9)
6위	관혼상제 (3.7)	생활용품 구입 (2.3)	왠지 불안해서 (3.2)
7위	부업자금 (2.0)	부업자금 마련 (1.8)	차입금 상환 (2.2)

자료 : 한국은행, 『도시가계저축시장조사』, 각연도.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중심으로 금융비용의 인하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점도 겸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겸업화가 이루어질 경우 범위의 경제가 작용하여 비용이 절감됨으로써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금융거래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외국들이 겸업화를 통해 금융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러한 비용절감은 국가간 경쟁에서 또는 개별 금융기관간 경쟁에서 경쟁의 우위에 설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Ⅱ-3> 개인부문의 금융상품별 자금운용

(단위 : 10억원, %)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금융기관예치금	47.1	57.2	54.3	61.4	58.5	70.4	59.9
통화금융기관	24.2	19.4	21.7	18.5	17.6	23.8	18.6
(요구불예금)	1.3	1.2	4.3	1.9	0.7	1.1	2.1
(저축성예금)	21.0	14.2	14.5	16.9	15.6	18.9	15.0
(CD)	1.9	4.0	2.9	-0.3	1.3	3.8	1.4
비통화금융기관	22.9	37.8	32.6	42.9	40.9	46.5	41.3
(RP)	-	0.2	2.2	2.1	-1.7	-0.3	2.2
(신탁)	11.4	10.0	6.2	17.6	18.2	16.2	23.4
(단자)	-0.6	2.7	-1.5	-1.5	0.3	3.4	0.2
(기타예금)	12.1	25.0	25.7	24.7	24.1	27.2	15.5
생명보험 및 연금	22.1	21.0	21.1	17.3	14.6	9.8	20.3
유가증권	11.5	17.3	20.3	18.8	18.1	17.1	18.6
(국공채)	-2.2	1.1	1.2	2.0	0.5	1.3	1.5
(금융채)	-1.8	1.8	2.4	-0.6	1.8	2.1	2.6
(기업어음)	-1.8	1.4	-1.0	2.6	1.5	0.3	2.2
(회사채)	0.7	1.8	2.8	-2.1	-0.6	0.9	-1.4
(투자수익증권)	11.5	7.1	5.3	9.4	12.7	9.6	3.9
(주식 등)	5.1	4.0	9.5	7.5	2.2	3.0	9.8
미수금 등	18.5	3.0	2.7	1.7	2.5	2.1	-1.2

자료 : 한국은행, 『우리나라 자금순환계정의 이해』, 1994.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호.

<표 Ⅱ-4> 금융관련기술과 거래형태의 범세계적 발전

	1996 2000	2001 2010	2011 2020
이론과 기술	퍼지이론 복합기술	소립자재무이론, 디지탈수렴	통일이론, 인조지능
금융거래	전화뱅킹, 화면전화 뱅킹, 플라스틱 전자 화폐, 파생금융상품	지갑뱅킹, 富계정, 전자화폐, 전자경매	시계뱅킹, 富카드, 자동분석기법

자료 : 新경제장기구상, 「21세기를 향한 금융산업발전방안 - 최종보고서(초안)」, 1996. 1. 24., p. 36.

개별금융기관이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업종에 참여하여 경영리스크를 분산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려는 데서도 금융겸업화의 유인은 존재한다. 개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 있는 부문에 특화하여 고수익을 올리는 것이 효율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잠재적 경쟁이 상존하고 있고 경영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경영상의 다양한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업부문의 다각화를 시도하게 된다. 이러한 다각화는 특정 산업 내에서 다양한 종목을 취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간에 걸쳐 사업부문을 구성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게 된다.

전자혁명에 따라 거듭되는 금융기술의 혁신도 금융겸업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의 금융기술혁신은 ATM(Automatic Teller Machine)[4] 등 기계화, 전화를 이용한 금융거래, 컴퓨터 네트워크상

4) 일본의 경우 생명보험회사가 「生保카드」를 발행하여 ATM을 통해서 계약자대부, 적립배당금·거치보험금의 인출 등 각종 보험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7년 2월 12일부터 삼성생명이 서울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자사의 보험카드를 가진 고객은 서울은행의 전국 모든

의 금융거래 등에서 시작되어 금융정보의 고속·대량처리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정보의 디지탈화 추세(표 Ⅱ-4 참조)는 즉각적인 위험평가, 금융결제, 신용공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험의 평가와 분석기법이 고도화되고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능력도 증대되었다. 이러한 발전이 가속화될 경우 범세계적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금융시스템의 동조화가 진행됨으로써 금융업간 업무영역의 구분은 더욱 모호해질 것이다.

<표 Ⅱ-5> 기업자금조달구조 변화

(단위 :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간접금융	26.0	21.1	34.5	48.5	38.4	31.8
예금은행	19.8	14.6	20.0	30.6	15.8	15.0
비예금은행	6.2	6.5	14.6	17.9	22.6	16.9
보험차입	0.2	0.2	1.7	3.9	5.8	0.5
단자차입	0.0	1.9	0.7	-1.7	3.7	2.6
기타차입	6.0	4.4	12.1	15.7	13.2	13.7
직접금융	9.9	19.9	22.0	26.2	42.4	51.0
국공채	0.0	0.6	0.9	0.7	2.9	-0.4
기업어음	0.0	1.2	4.8	0.4	3.7	16.1
회사채	0.7	0.8	5.9	13.9	21.5	14.4
주식	9.1	17.2	10.5	11.2	14.2	15.3
해외차입	19.4	22.7	16.0	0.6	6.4	5.6
기타	44.7	36.3	27.5	24.7	12.8	11.6
정부융자	3.5	1.5	2.6	0.2	-0.1	6.4
기업신용	6.7	11.1	20.9	10.8	6.6	5.3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각호.

ATM을 통해 보험금, 대출금, 배당금 등을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또한 보험료, 대출이자 등도 서울은행 계좌에서 보험사 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보면 과거와는 달리 간접금융에의 의존도가 저하되는 대신에 직접금융에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Ⅱ-5 참조). 특히 기업들의 중요한 자금조달원이었던 예금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은행은 새로운 수익 원인 회사채나 주식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금융겸업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신용금고, 할부금융, 종금사 등이 소비자금융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은행이 타 업무영역으로 진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

2. 금융산업개편안과 경쟁업종의 동향

가. 금융산업개편안의 내용

금융겸업화에 대한 공식적 논의는 199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21세기경제 장기구상의 「개방시대의 금융산업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이라고 약칭함)이라는 주제 하에 다루어졌다. 이하에서는 21세기경제 장기구상의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금융산업 개편 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5].

「발전방안」에 따르면 금융기관간 업무영역조정은 2000년까지는 「新경제 5개년 계획」과 「금융개혁」 계획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을 3대 축으로 유지하면서 자회사를 통한 이종 업종의 부수업무 진출을 확대 허용하고, 21세기에 들어가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주의'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때 '겸업주의'란 직접겸영 방식[6], 업종별 자회사 방식[7], 지주회사 방식[8] 등의 세 가지 진출방

---

5) 최근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금융산업 업무영역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한 광범위한 금융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아직까지는 초안도 나와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발전방안」을 그대로 원용하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이하의 내용을 논하기로 한다.

식을 모두 허용함으로써 금융기관 스스로가 자신의 업무영역 및 진출방식을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듯 금융기관 스스로가 업무범위 및 타금융권 진출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경우 금융기관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직접겸영방식, 업종별 자회사방식, 지주회사방식 중에서 선택하여 겸업화하던가 또는 전문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를 계기로 금융개혁 속도가 빨라지면서 「발전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이 다소 수정되고 일정도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1) 금융산업개편안

먼저 2000년까지의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은행, 증권, 보험을 중심으로 이종 업종 부수업무에 대한 직접겸영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고유업무에 대한 자회사 방식의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은행의 고유업무 중 지급결제시스템과 관련된 것은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타업의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수업무의 직접겸영과 관련해서는 일정기준을 만족시키는 일부 은행에게 회사채 인수에 대한 간사업무를 허용하고 은행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

---

6) 직접겸영방식은 개별금융기관 자체적으로 타업종의 업무를 직접 취급하도록 허용하는 방식인데, 타업종 업무허용폭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직접겸영이 가능하며 독일의 경우 가장 폭넓은 직접겸영방식을 택해 왔다.

7) 업종별 자회사 방식은 특정 금융기관이 업종별 현재 업무를 존중하면서 자회사를 통해 타업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일본, 캐나다, 영국 등이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8) 지주회사방식은 지주회사로 하여금 이종 업종에 진출한 여러 개의 자회사를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그룹 전체적으로 겸업화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경우 법인인 지주회사가 은행과 증권회사 등을 소유한다.

해 기업 합병·매수 관련 알선 및 자문업무 허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증권회사의 금융전산망 가입을 추진하고 환전업무 관련 외환업무 확대, 외환OTC시장에의 직접 참여 허용, 외화차입범위 확대 및 증권 관련 외화대출 허용 등 외환업무를 확대할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이 되었던 은행·보험업무간 업무영역조정은 선진국 금융시장에서의 은행과 보험부문간 연계 강화 추세를 감안하여 은행·보험간 복합상품개발 및 전략적 제휴를 허용할 것을 검토한다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었다.

<표 Ⅱ-6> 업종간 업무영역 조정방안 요약

	은행	증권	보험
은행	-	증권회사의 금융전산망 가입 추진, 외환업무 확대(환전업무관련, 외환OTC시장 직접참여 및 직접환거래, 외화차입범위의 확대, 증권관련 외화대출)	제한적 외환업무, 은행·보험간 복합상품개발 및 전략적 제휴
증권	회사채 인수에 대한 간사업무, 기업 합병·매수(M&A)관련 알선 및 자문업무 확대, 은행신탁업무의 종합신탁화	-	국공채 인수단 참여, 사모채알선업무
보험	은행·보험간 복합상품개발 및 전략적 제휴	-	-

한편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취약점 중 하나인 장기금융제도의 발달을 위해서는 일반은행들의 금융채발행을 장기금융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 맞추어 허용하고 자본시장내 투자은행기능의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보험업 내에서는 생·손보간 제3분야(상해, 질병, 개호보험)의 상호 모회사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보험사 업무영역 확대와 관련하여 국공채 인수단 참여, 사모채 알선업무, 부동산신탁, 부동산관리, 기업어음할인, 벤쳐캐피탈, 리스업무 등 보험사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변업무의 신설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2001년 이후에는 자회사를 통한 금융업종간 겸업체제를 확대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주의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을 통해서 또는 단독으로 형성된 유니버설 뱅크와 전문화된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들이 금융시장 내에 공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생·손보사간 고유업무의 상호진출은 리스크 차단장치를 마련하여 자회사 방식에 의거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발전방안」의 금융산업개편안은 은행, 증권, 보험이라는 3대축을 중심으로 산업개편을 논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은행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금융겸업화가 금융권간 경쟁의 심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금융제도 전반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기보다는 수익기반의 잠식에 따른 은행의 타업무영역 진출을 위한 논리적 근거로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은행의 보험판매는 금융겸업화 과정에서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지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유럽에서 은행이 보험업에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만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유럽지역에서 은행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 강한 은행이 약한 보험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는 사실로도 충분히 뒷받침된다[9]. 따라서 향후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소유구조

금융산업 개편과 관련하여 반드시 언급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소유구조 문제이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산업과 금융의 분리원칙을 유지하되, 21세기 이후에는 재벌기업의 소유분산과 지배구조가 개선될 경우 이 원칙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산업과 금융의 분리 및 연계의 장단점[10]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이미 문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과 금융의 분리여부는 경제력 집중의 완화라는 과제와 연계하여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전업기업군의 형성을 통해 그룹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그룹 내 각 금융기관은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유지하더라도 그룹경영이 총괄적으로 지휘되고 통제되는 경영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향후 산업자본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 대주주 소유상한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소유구조 논의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

---

9) 물론 Nat-Ned와 NMB/Postbank의 합병 사례에서처럼 은행과 보험회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합병한 사례도 존재하며, 덴마크의 보험회사인 Fortis가 ASLK-CGER은행을 합병한 사례에서처럼 강한 보험회사가 약한 은행을 합병하는 경우도 일부 존재한다.

10) 산업과 금융의 분리 및 연계는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산업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새로운 자본을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의 경영 노하우가 은행에 전수되는 등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장점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업도 규제할 수밖에 없게 될 경우 경제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한 아쉬움을 남겼다. 지주회사제도는 모든 금융선진국들에서 도입하고 있고[11], 또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적으면서도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 하에 금융업에만 특화한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경쟁 금융업의 동향

1) 은행업

우리나라 은행은 은행법상 고유업무인 예금업무와 대출업무를 중심으로 내국환 및 외국환 등 환업무, 채무보증업무, 유가증권투자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서 영위하고 있다[12]. 그런데 최근 전통적인 업무부문에서 수익률이 저하되자 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찾기 위해 업무영역의 확대를 원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확대하기를 원하는 업무영역은 크게 증권업 분야, 보험업 분야, 신탁업 분야로 나눌 수 있다[13].

---

11) 최근 일본에서도 순수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독점금지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分社統括型 지주회사, 금융 지주회사, 벤쳐캐피탈 지주회사, 일정규모 이하 지주회사 등에 대해서는 설립을 자유화하고, 일정규모를 넘는 지주회사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다는 것이다.『讀賣新聞』, 1997. 1. 17.

12) 우리나라 예금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뉜다. 특수은행은 본래 자금운용면에서 상업금융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보완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특정 부문에 대한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일반은행의 업무와 동질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을 구별하지 않고서 사용하기로 한다.

13) 이에 관한 논의로는「발전방안」의 금융산업개편 부분을 참조하면 대체적인 방향을 알 수 있다. 한국은행 정익준(1996)의 제안도 대체로 그 범위 안에서 대동소이 하다.

그리하여 은행들은 전통적으로 증권업무로 인식되어 오던 M&A업무를 새로운 수익 원으로 여기고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보험과 연계한 상품개발을 위해 관련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다져 가고 있다. 이러한 준비 하에 규제완화 시기에 맞추어 보험대리 및 중개업무의 취급, 보험사와의 업무제휴를 통한 보험상품의 은행창구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흥은행은 1997년 1월 7일자로 현대해상화재와 쌍용화재 등 2개 손해보험사와 연계해 고객에게 교통상해 보험증권을 제공하는 복합 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이날부터 판매한다고 발표하였다[14].

이러한 제휴 움직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은행은 국민은행과 13개 계열 자회사를 묶어 종합금융그룹화 할 계획을 발표했는데[15], 이에 따르면 보험업이나 증권업 등 신규업무에도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조흥은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이 금융그룹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은행간 합병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16].

2) 증권•투신업

현재 증권회사는「증권거래법」제51조에 의해 증권업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영하지 못하도록 업무영역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증권회사는 ① 유가증권의 매매, ②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③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④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의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⑤ 유가증권의 인수, ⑥ 유가증권의 매출, ⑦ 유가증권의 모집

---

14) 은행의 보험판매는 아직 경품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그 양태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중앙일보』, 1997. 1. 13.

16) 1997년 2월 18일에 발표된「보험산업 신규진입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의 보험자회사 소유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은행의 보험업 진출은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Ⅱ-7> 증권업의 업무영역

고유업무	부수업무
- 유가증권의 매매 -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 유가증권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의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 유가증권의 인수 - 유가증권의 매출 -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 증권저축업무 - 신용공여업무 - 회사채지급보증업무 - CD중개 - 해외증권업무 -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 금고대여 - 상임대리업무 - 부동산임대 - 환매채업무 - BMF업무 - 투자고문업

자료 :「증권거래법」.

또는 매출의 주선 등을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증권회사는 부수업무로서 증권저축업무, 신용공여업무, 회사채지급보증업무, CD중개, 해외증권업무, 사채모집의 수탁업무, 금고대여, 상임대리업무, 부동산임대, 환매채업무, BMF업무, 투자고문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증권 업계에서는 세계적인 업무영역 자유화 추세와 아울러 은행의 증권업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쪽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를 원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은행업무 중에서도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증권업무가 국제화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또한 증권사들은 선물거래나 신용금고업 등으로 사업영역 넓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17].

17) 쌍용증권의 경우 1996년 9월에 은행·보험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을 모아 선물시장에 대신 투자해 주는 선물기금관리회사 '인피니티'를 설립

그 결과 1996년 9월 말 현재 증권사들의 타법인 출자는 9,541억 원으로 6월 말에 비해 3개월 사이에 1,012억 원이 늘어났다. 이 중 자문·투신운용업 부문의 출자가 9백13억원, 종금·신용금고 등의 출자가 3백25억원을 차지했다.

한편 투신회사들은 증권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을 계기로 모회사 자체가 증권회사로 전환하고 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상품개발과 마케팅 분야를 강화하여 고객니드와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상품개발을 위해서는 상품개발부서를 독립시켜 다양한 신상품, 복합상품, 파생상품 등을 개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케팅 분야의 강화와 관련해서는 연수 등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더욱 과학적이고 실용성이 높은 영업전략을 수립한다는 전략이다.

3. 범위의 경제와 금융겸업화

가. 금융겸업화의 효과

금융겸업화란 기존에 규제되어 오던 각 업종별 업무영역이 자유화되어 상호간에 교차적으로 상대업종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국가마다 겸업화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방카슈랑스(Bancassurance) 또는 알피난츠(Allfinanz) 등으로 표현되고 있으나, 그 내용상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은행과 증권간의 겸업에서 더 나아가 보험업까지를 포괄하는 겸업화를 지칭하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하였다. 대신증권도 신용금고업 진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증권사들은 투자신탁운용회사나 선물회사 등을 자회사로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 1996. 12. 4.

한 금융겸업화는 대개의 경우 은행권이 업무영역을 보험업무로까지 확대하고, 보험업이 이에 대응하여 은행과 전략적 제휴 나아가서는 자회사로 소유하는 상호침투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겸업화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갖는다(표 Ⅱ-8 참조). 첫째,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연계복합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로 이용자 편익을 제고시킬 수 있다. 셋째, 금융거래비용을 절감시켜 국민경제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넷째,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통일적인 브랜드를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여러 금융업무를 취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여섯째, 특정업무의 고객을 다른 업무에 쉽게 연계시킬 수 있으므로 고객확보가 용이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나타남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은행업무에 타금융업종이 진출함으로써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둘째, 금융의 독과점 내지 집중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여러 금융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금융겸업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인건비 앙등 등으로 인한 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 다섯째, 은행업과 보험업간에 존재하는 상이한 기업문화를 통합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너지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러한 금융겸업화의 장단점은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되었다기보다는 이론적인 가설 수준에 머무르거나 몇몇 사례분석을 통한 가설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금융겸업화 효과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향후 정밀한 분석 방법을 통해 실증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Ⅱ-8> 금융겸업화의 효과 비교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
- 금융기관 경영에 있어서 규모 및 범위의 경제 달성 - 연계복합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로 이용자 편익 제고 - 금융거래비용의 절감 -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통일적인 브랜드 제공 가능 - 금융기관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분산 - 고객확보의 용이	-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저해 우려 - 금융의 독과점 내지 집중현상 발생 가능성 - 금융업종간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 - 인건비 앙등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가능성 - 상이한 기업문화 통합의 곤란

나. 범위의 경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일반적으로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는 n개의 산출물을 하나의 기업에서 생산할 때 n개의 기업에서 각기 생산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절감된다는 가설이다. 그리고 금융겸업화는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여러 가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금융기관을 기업으로 대체해 놓고 보면 금융서비스는 무형의 산출물이라고 볼 수 있다.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하나의 금융기관이 제공할 경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금융겸업화는 이론적으로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지지될 수 있다.

이 때 금융산업에서 비용이 절감되는 원천은 고정시설의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절감, 정보의 공유에 의한 비용절감, 투자포트폴리오의 다변화에 의한 위험분산, 동일 장소에서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증대와 그에 따른 수익의 증대 효과 등을 들 수 있다[18].

본래 범위의 경제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화는 Baumol-Panzar-Willig (1982)가 다기능기업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들은 단일 기업이 동시에 여러 개의 산출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산출물들을 각각 분리하여 개별 기업들이 생산할 경우에 비해 비용이 절약된다면 이들 산출물간에는 범위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기존의 Stigler의 연구와는 달리 시장 규모의 중요성보다는 범위의 경제라는 기술적 조건의 충족 여부가 다기능 기업의 존재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다[19].

그 후 Berger 등(1987)의 연구에서는 금융업무의 범위의 경제의 원천으로 첫째, 겸업에 따른 생산효율의 증대나 생산비용의 절감효과, 둘째,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동시소비를 통한 소비자잉여의 증대와 금융수요의 증대를 통한 업무 및 수익의 신장 도모, 셋째, 금융자산과 부채보유의 다양화를 통한 각종 금융위험의 분산 및 감소효과 등을 들고 있다.

또한 Litan(1987)은 범위의 경제를 내부범위의 경제(internal scope economies)와 외부범위의 경제(external scope economies)로 구분하였다. 내부범위의 경제란 생산자가 결합생산과 결합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20]을 가리키며, 외부범위의 경제란 수요자가 결합소비를 통해 얻는 효용 증대를 가리킨다.

다. 보험업에 있어서 범위의 경제에 대한 실증분석

금융겸업화를 지지하는 실증적인 연구는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지

---

18) 좌승희(1995), pp. 137 138.
19) 이에 대한 자세한 이론적 전개는 좌승희(1995)에 잘 정리되어 있다.
20) Litan은 범위의 경제의 효과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천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다(좌승희, 1995, p. 59 참조). 첫째, 고객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정보비용의 절감, 둘째, 컴퓨터 장비 등 설비의 공동이용, 셋째, 한 가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설비에 약간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면 다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

여부를 증명하는 것에 집중되었다[21]. 범위의 경제라는 개념은 대체로 그것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실증의 문제가 더 중요하므로, 금융산업 특히 보험산업에서의 범위의 경제 문제도 이론적 발전보다는 실증분석에 치중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보험산업에서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22]를 검토하고 여기에서 시사점을 얻기로 한다.

1) 국내 연구사례

보험산업에서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내 최초의 실증분석은 생명보험산업을 대상으로 한 권영준(1994)의 연구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권영준은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는데, 분석대상을 자산운용업무에 국한시켜 생보사의 생산활동을 현·예금, 유가증권, 대출, 부동산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고 그에 따라 비용도 자산운용관리비를 사용하였다[23]. 또한 자료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CY'91과 CY'92의 횡단면 자료를 결합하여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그는 유가증권과 대출, 유가증권과 현、예금간에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함을 보였는데, 특히 유

---

21) 범위의 경제를 증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과 함수 설정과 관련해서는 Forestieri(1993), pp. 79 85를 참조할 수 있다.

22) 은행산업에서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로는 이필상·문한근(1990)과 김인기·김장희(1991), 좌승희(1995)의 연구가 있다. 이필상·문한근(1990)과 김인기·김장희(1991)의 연구 모두 은행산업에서 시중은행의 경우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좌승희(1995)도 은행산업에서 유가증권업무와 예금업무, 신탁수신업무에서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증권산업에서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로는 이영기·최범수(1989)와 좌승희(1995)가 있다. 이영기·최범수(1989)는 증권산업에서는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좌승희(1995)의 연구도 전업무간에는 물론 개별업무들도 모두 범위의 비경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23)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가증권업무와 대출업무간에는 비용보완성이 상당히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그 후 나동민(1995)도 생명보험산업에 대해 트랜스로그 비용함수를 이용하여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25]. 나동민은 보험산업의 생산물을 ① 수익성 및 생산기능을 고려한 보험료수입 및 자산운용총액, ② 생산기능을 강조한 신계약액 및 자산운용총액, ③ 보험영업수익 및 자산운용수익 등 세 가지로 정의하고 분석 대상 기간을 1989 93년으로 하여 각각 모형 Ⅰ, 모형 Ⅱ, 모형 Ⅲ으로 나누어 범위의 경제성 여부를 추정하였다.

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산기능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 Ⅰ의 경우 σ_{12}의 값이 대체로 0보다 작게 나타나 보험영업업무와 자산운용업

$$
\begin{aligned}
\ln C = & \ \alpha_0 + \sum_{i=1}^{4} \alpha_i \ln Y_i + \frac{1}{2} \sum_{i=1}^{4} \sum_{j=1}^{4} \sigma_{ij} \ln Y_i \ln Y_j \\
= & \ \alpha_0 + \alpha_1 \ln Y_1 + \alpha_2 \ln Y_2 + \alpha_3 \ln Y_3 + \alpha_4 \ln Y_4 \\
& + \frac{1}{2} [\ \sigma_{11} \ln (Y_1)^2 + \sigma_{22} \ln (Y_2)^2 + \sigma_{33} \ln (Y_3)^2 + \sigma_{44} \ln (Y_4)^2] \\
& + \sigma_{12} \ln Y_1 \ln Y_2 + \sigma_{13} \ln Y_1 \ln Y_3 + \sigma_{14} \ln Y_1 \ln Y_4 \\
& + \sigma_{23} \ln Y_2 \ln Y_3 + \sigma_{24} \ln Y_2 \ln Y_4 + \sigma_{34} \ln Y_3 \ln Y_4
\end{aligned}
$$

단, C는 자산운용관리비, Y_1은 유가증권, Y_2는 대출, Y_3는 부동산, Y_4는 현·예금을 나타낸다.

24) 권영준(1994)은 유가증권과 대출업무간의 비용보완성은 대출업무를 통해 획득한 기업정보를 유가증권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하였으며, 유가증권과 현·예금의 비용보완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유가증권투자가 현금보유와의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으로 해석하였다.

25)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
\begin{aligned}
\ln (C) = & \ \alpha_0 + \alpha_1 \ln (Y_1) + \alpha_2 \ln (Y_2) \\
& + \frac{1}{2} \sigma_1 [\ln (Y_1)]^2 + \frac{1}{2} \sigma_2 [\ln (Y_2)]^2 \\
& + \sigma_{12} \ln (Y_1) \ln (Y_2)
\end{aligned}
$$

단, C는 총생산비용을 나타내며, Y_1과 Y_2는 모형Ⅰ에서는 보험료수입과 자산총액을, 모형Ⅱ에서는 신계약액과 자산운용총액을, 모형Ⅲ에서는 보험영업수익 및 자산운용수익을 나타낸다.

무간에 비용보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정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기능에 중점을 둔 모형 II에서는 주업무와 부수업무간에 비용보완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1989 93년의 합동모형에서는 기존 6개사 및 신설사에 규모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수익성에 중점을 둔 모형 III은 대체로 모형 I과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보험영업과 자산운용업무간에 범위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회사별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회사의 규모나 영업년수에 관계없이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함을 보였다. 이상의 세 가지 모형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생명보험 산업 전체적으로 주업무인 보험영업업무와 부수업무인 자산운용업무간에는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2) 해외 연구사례[26)]

Mathewson-Todd(1982)는 캐나다의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1961, 66, 71, 76년의 각년도 실증분석을 하였는데, 개인보험과 단체연금간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Kellner-Mathewson(1983)과 Fields-Murphy(1989)는 비용보완성의 증거를 발견했으나, Suret(1991)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Fields(1988)는 다각화의 효과가 오히려 음의 범위의 경제효과를 낳거나 불확실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Teyssier(1991) 역시 범위의 경제효과는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 모두에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명확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Grace와 Timme(1992)는 1987년의 일본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증권투자, 개인보험, 단체보험, 개인연금, 단체연금 등에 대해

26) 이에 대해서는 <부표 1>에 요약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범위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 경제기획청(1989)의 연구는 일본의 생명보험업에서 범위의 경제성을 입증한 최초의 연구인데, 보험업무와 자산운용업무간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는 생명보험산업에서 범위의 경제가 존재함을 증명하려는 많은 연구가 뒤따랐다. 筒井·關口·茶野(1992)는 1976 89년 일본의 생명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보험업무와 자산운용업무간에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飯田(1992)의 연구는 1986 89년 일본 손해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한 결과 보험료수입과 보험료 이외의 수입간에는 비용보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방법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금융산업의 범위의 경제성 연구는 공통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즉, 보험회사의 범위의 경제성 존재 여부도 생산물에 대한 정의와 측정모형 및 추정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7].

또한 범위의 경제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는 현실에서 다수의 업무를 직접 겸영하지 않는 한은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다만 이론적으로 제시된 것을 적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28].

따라서 본고에서는 금융겸업화는 범위의 경제효과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가정하되, 우리 나라의 보험업과 타업간에 겸업화가 이루어질 경우 범위의 경제성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추정하지 않기로 한다[29]. 이는 현재로서는 본 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겸업화

---

27) 권영준(1994), p. 237.

28) A. Steiner(1996)에 의하면 「유니버설 뱅크」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그리고 수요추세에 맞추어 내부적으로 자원 재할당의 가능성 등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실증적 증명이 극히 어렵고, 지금까지 결정적인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29) 금융산업에서 범위의 경제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에 못지 않게

유형을 실증분석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업무들간의 범위의 경제성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은 본 고에서 상정하는 금융겸업화가 진행된 이후 일정한 시점이 지나서 수행할 과제로 남겨 둔다.

실증문제에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금융겸업화를 지지하기 위해 유일한 근거로 제시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고 보겠다.